하나금융그룹

04

2014년 No.04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 동향과 은퇴자금 마련 전략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행태 분석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 동향과 은퇴자금 마련 전략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행태 분석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화학회사 임원 K씨, 높은 보유 금융 자산에 대한 안정적 투자전략 요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4월 주식시장은 박스권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09
국내외 단신	2013년 주요국 연금시장의 성장 및 투자 전략 변화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필요 1인당 진료비 年100만원 돌파	14
상품브리프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 주택연금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관절염 예방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신축 및 리모델링까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22
연금 통계		23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 동향과 은퇴자금 마련 전략

수석연구원 손 정 락
(urb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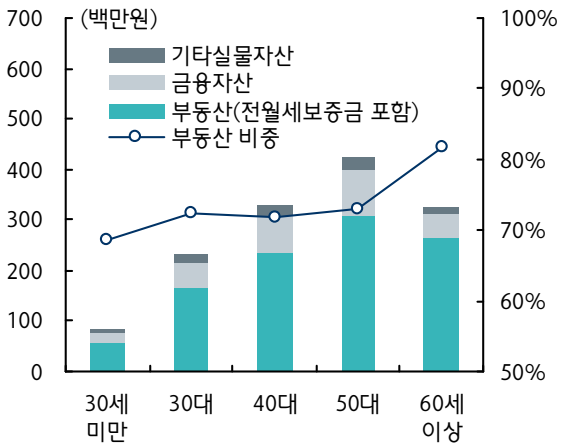
"국내 가계는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한 풀 꺾인데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부동산을 어떻게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 하락 등의 시장 조정을 겪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도 임대인 과세 강화로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태이다. 시장 조정기일수록 안정적 현금흐름과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성장중인 간접투자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전체 가계자산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금융자산이 30~40% 수준인 미국, 일본에 비하면 부동산의 비중이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3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세대에 걸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상승 지속으로 가계의 자산 편중 심화

부동산 위주로 가계 자산이 편중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 투자상품인 아파트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씩 가격이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증가율(4.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매 십 년마다 집값이 두 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은행 예·적금을 제외하고 투자할만한 금융상품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 국내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이 확대된 것은 2004년 간투법 도입 이후로 비교적 역사가 짧다.

연령별 가계 자산규모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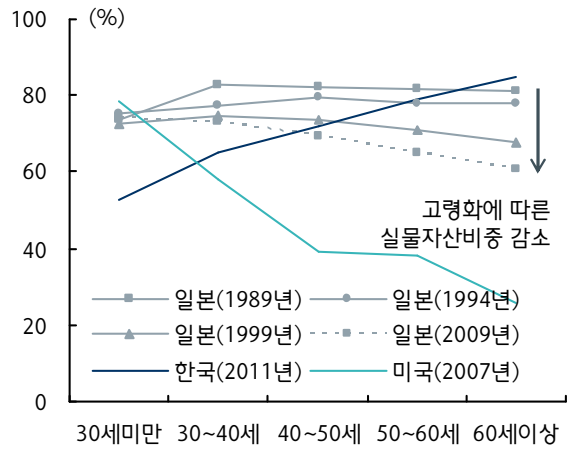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13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

해외 주요국 가계는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재편해 왔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990년 40%에 이르던 실물자산 비중이 2012년 30%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또한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실물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40대 이상 가계에서는 해당 비율이 40% 이하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과 가계자산 구성이 유사했던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실물자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노년층 가계일수록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한 풀 꺾인데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또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향후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직성 자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요국 실물자산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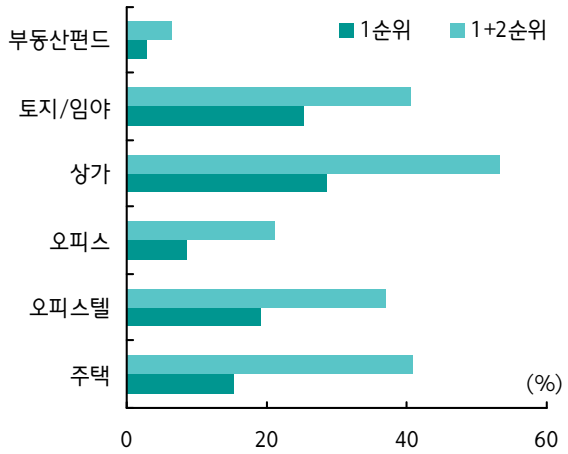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

유동성 자산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피스,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임대수익률이 통상 5%를 넘기 때문에 2~3%에 불과한 은행 금리에 비해 투자성과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는 가운데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이행 중이다.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은 2005년 9.1%, 2010년 10.2%에서 2030년에는 24.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층일수록 안전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자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대상 설문에서, 주택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산가들이 부동산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자산구성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셈이다. .

부동산 자산별 향후 투자 의향



| 자료 : KB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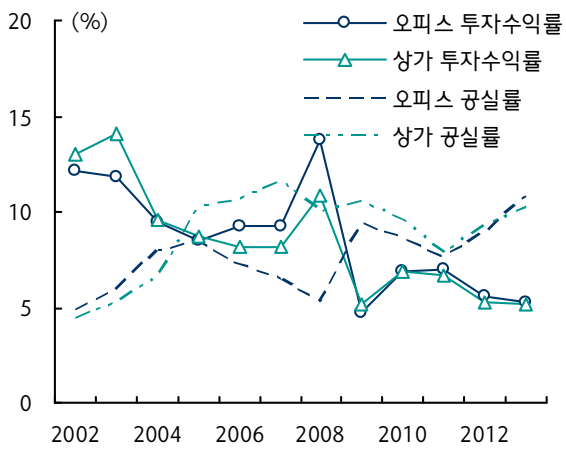
수익형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 진입

국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여건은 최근 다소 악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10%를 상회했던 오피스와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임대수익을 기초로 산정하는 임대수익률은 5~6% 가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수익 측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거시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소규모 상가, 오피스 등의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각각 7.6%, 7.8%이던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률은 2013년에는 10.7%와 10.2%로 증가하였다.

주택 시장의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다. 2008~10년 연평균 8.6천호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공급은 2011~12년 13.6천호를 거쳐 2013~14년에는 37.1천호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등 시장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다.

오피스 및 상가 투자수익률과 공실률



자료 : 한국감정원

과세 강화로 주택 임대사업 여건도 악화

주택시장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선진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임대업자, 특히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6 방안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과세강화의 일환으로, 세제 인센티브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비제도권 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전환한다는 의도이다.

문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다수가 지금까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데다, 인센티브에 비해 과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수익률이 통상 5% 수준이므로 20%의 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익률은 1%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이 추가로 늘어나므로 실제 수익률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임대시장에서는 월세 유지, 전세로의 전환, 임대사업 포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임대인들의 고심이 지속되고 있다. 생계형 임대업자인 월세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 과세가 유예되나, 당분간 시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과세 강화방안 주요 내용

	과세강화	인센티브
2주택자 (월세소득 2천만원 이하)	14%세율 분리과세 (2년간 과세유예)	임대소득공제(400만원) 필요경비율 60% 인정 사업자 등록의무 면제
기타 다주택자	올해부터 과세 (임차인 세액공제, 공제신청 간소화 및 경정청구권 부여)	종합소득 신고시 타 소득과의 공제 허용
전세 임대인	2주택자도 과세 (2년간 과세유예)	3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준공공임대 등록시	재산세 감면률 25%p 확대 소득·법인세 감면율 10%p(20%→30%) 확대 임대기간(10년) 양도소득 비과세	

자료 : 국토교통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정리

포트폴리오 전략 및 간접투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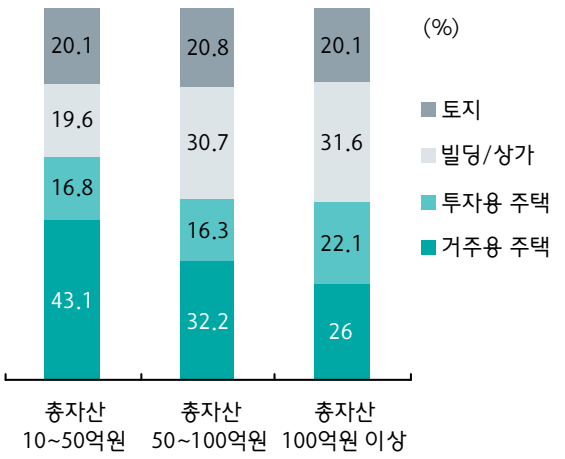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구조 변화의 이행기에 위치해 있다. 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세 상승기를 지나 시장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시세차익만을 노리기 보다는 투자 자산의 배분에 보다 신경을 쓰고 우량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수익형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 및 간접투자상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전략이 임대수익 등 안정적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11~13년 대구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연평균 11% 상승한 데서 보듯, 시세차익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투자금액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보다 신경을 쓰되 시세차익의 기회도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도록 투자 자산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한국 부유층을 보면, 주택, 빌딩/상가, 토지 등으로 나누어 부동산 투자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거주주택이 30~40%, 수익형 부동산이 35~50%,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토지가 자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늘수록 수익형 부동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리츠, 부동산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리츠나 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기관투자가에 더해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오피스, 상가, 호텔, 물류시설, 해외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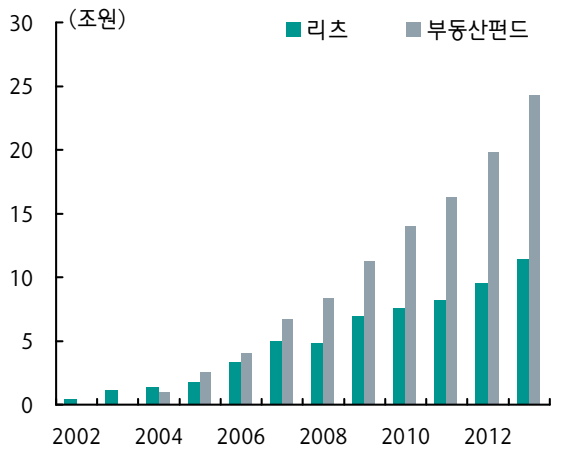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간접투자시장의 육성,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경, 고령화 시대의 대비 등 제반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공모 시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을 통해 간접투자시장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 투자리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시장을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이의 한 사례이다. 한국과 유사한 시기에 간접투자 시장을 출범시킨 일본에서도, 기업의 보유부동산 유동화 수요 및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라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한 바 있다.

한국 부자 부동산 자산 구성



자료 : KB경영연구소

리츠 및 부동산펀드 자산규모



자료 : 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행태 분석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오 영 선
(ohys@hanafn.com)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뱅킹 이용자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60대 이상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이용 비중 역시 높지 않지만 이미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고연령대 소비자들은 젊은 연령대보다도 오히려 이체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이체 경험이 있는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시 작은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을 불편하게 인식하므로 각 은행은 고령자의 스마트폰뱅킹 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즘 구청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강좌는 스마트폰 이용법을 익히는 강좌이다. 이 강좌의 수강생들은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 검색, 메신저 이용, 사진 · 동영상 편집, SNS 활동 방법 등을 배운다. 고연령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늘어나면서 자녀 · 손자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마트 시니어, 실버 모빌리언(silver mobilian)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데 이어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제공,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ICT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없을 듯 하다.

고령자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 증가 추세

이렇게 스마트폰이 노년층 사이에서 단순한 통화수단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60대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가 2012년 2.6%에서 2013년 3.5%로 증가했다. 아직은 이용자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노년층은 젊은 연령대의 금융소비자들에 비하여 보유 금융자산이 많고 거래액수가 크다는 점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뱅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폰뱅킹 이용행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다른 연령대와는 다소 다른 금융서비스 이용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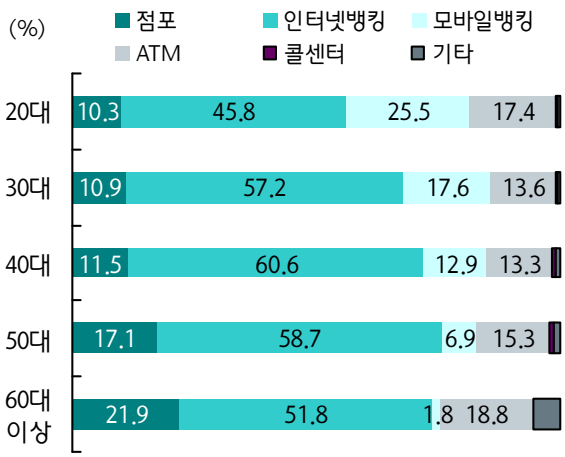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 수는 적지만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

우선 일반적인 은행 이용 고객들을 통해 고연령대 고객들이 은행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60대 이상의 고연령대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이 51.8%, 점포를 이용하는 비중이 21.9%, 그리고 ATM을 이용 하는 비중이 18.8%였으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고객들이 다른 채널보다도 인터넷뱅킹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점포를 이용하는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큰 수치를 보였다 . 점포를 이용하는 비중은 60대 이상의 경우 21.9%로 나타나 20~30대가 점포를 이용하는 비중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그런데 전체 금융소비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객이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고 이들이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중도 작은 편이었지만, 스마트폰뱅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금융행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소 달라진다. 60대 이상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은 젊은 연령대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에 비하여 자금 이체를 빈번하게 하고 이체를 했던 금액의 상한선도 큰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대 고객 중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집단은 휴대폰을 이용해 활발하게 금융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총 3회 이상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의 스마트폰뱅킹 이용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에게 본인이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장 빈번하게 처리한 업무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금 이체를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나타난 반면, 연령대가 낮은 그룹은 거래 내용(잔액) 확인 업무를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뱅킹으로 자금 이체를 가장 빈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31.5%, 30~50대는 54.3~57.4%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은 74.4%의 응답률을 보였다. 거래내용이나 잔액 확인을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67.5%로 파악되었으나 60대 이상은 20.5%에 그쳤다. 자금 이체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공과금 납부를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했는데, 스마트폰뱅킹으로 공과금 납부를 가장 빈번하게 처리하는 업무라고 응답한 비율도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은행 채널 이용 비중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장 빈번하게 처리하는 업무

(단위 :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금 이체	50.8	31.5	54.3	54.7	57.4	74.4
거래 내용(잔액) 확인	46.9	67.5	43.3	43.0	39.0	20.5
공과금 납부	1.9	1.0	2.0	1.8	2.1	5.1
금융상품 정보 수집	0.2	0.0	0.0	0.0	1.4	0.0
환전	0.1	0.0	0.3	0.0	0.0	0.0
금융상품 가입	0.1	0.0	0.0	0.4	0.0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어서 동일한 조건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60대 이상의 고객은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하여 자금 이체,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 정보 수집 경험 비율은 다소 높았으나 거래 내용(잔액) 확인, 금융상품 가입, 금융상품 해지, 환전 경험 비율은 낮은 모습을 보였다. 60대 이상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는 비율은 15.4%였다. 이 비율은 20~30대보다는 6~9%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40~50대보다는 오히려 높은 비율이었다.

작은 화면, 작은 글자 입력을 불편하게 인식

아울러 60대 이상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의 스마트폰뱅킹 이용 관련 불만사항을 알아보았다.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그쳤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불만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화면이 작아서 제한된 정보만을 볼 수 없는 점이 불편했다(30.8%)', '숫자 및 알파벳 버튼이 작아서 입력이 용이하지 않다(28.2%)', '앱 실행시 화면이 멈추거나 다운되는(렉이 걸리는) 현상이 있다(23.1%)', '상품 상담 및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23.1%)'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글자가 작거나 흐려서 답답했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고연령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은 주로 화면 크기에 의한 정보 확인 및 입력이 어려운 점을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회사들은 노년층이 스마트폰뱅킹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확대기능을 제공하고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이내 스마트폰뱅킹으로 처리한 업무

(단위 :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금 이체	94.0	91.4	95.7	94.2	92.9	97.4
거래 내용(잔액) 확인	91.2	97.5	89.7	91.0	87.2	87.2
공과금 납부	34.6	29.4	35.0	32.7	42.6	38.5
금융상품 가입	18.9	21.3	24.7	13.0	13.5	15.4
금융상품 정보 수집	15.7	18.8	15.0	13.5	15.6	17.9
금융상품 해지	9.0	11.2	12.7	4.5	6.4	5.1
환전	3.4	5.1	4.0	1.8	3.5	0.0
기타	0.1	0.0	0.3	0.0	0.0	0.0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거래 금액이 큰 이체 경험 비율은 노년층이 젊은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은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스마트폰뱅킹의 보안에 대한 우려수준이 낮은 집단이긴 하지만,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도 대체로 금액이 큰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보안 문제가 우려되어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꺼린다고 인식하는 편이다.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 중에서 금액이 큰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보안 문제가 우려되어 스마트폰뱅킹 이용이 꺼려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고객이 78%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80.5%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래할 때에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연령대별로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체해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았더니, 1,000만원 이상을 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 관련 불만사항

(단위 : %)

불만사항	비율
화면이 작아서 제한된 정보만을 볼 수 없는 점이 불편했다	30.8
숫자 및 알파벳 버튼이 작아서 입력이 용이하지 않았다	28.2
앱 실행시 화면이 멈추거나 다운되는(렉이 걸리는) 현상이 있다	23.1
상품 상담 및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23.1
원하는 업무 기능의 메뉴를 찾기가 어려웠다	15.4
글자가 작거나 흐려서 답답했다	10.3
없다	30.8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상의 고객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 그룹에서 60대 이상이 기존에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로 조사되었으나 다른 연령대의 경우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연령대 고객들의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도 있겠지만 이미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는 고연령대 고객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규모가 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 전용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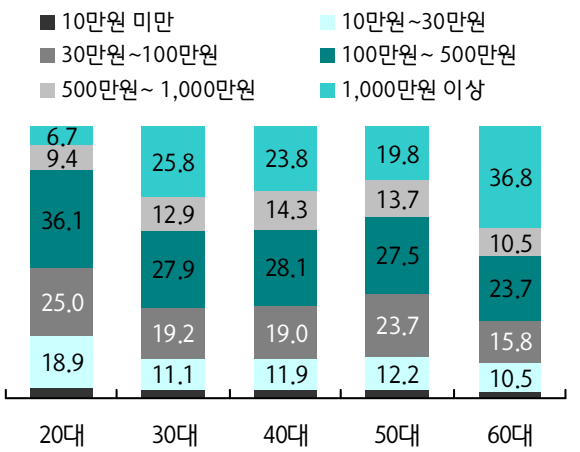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는 향후 PC기반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금융서비스 채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고연령대 고객들의 스마트폰뱅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국내 스마트폰뱅킹 시장이 이용건수에 비하여 거래금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노년층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스마트폰뱅킹 거래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은행들은 우수한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노년층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폰뱅킹 이용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년층을 겨냥하여 글자크기가 크고 문의사항을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도 고연령대 고객의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을 확산시키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젊은 연령대 고객에 비하여 이체를 빈번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체 계좌번호 입력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기존에 이체했던 대상자의 리스트를 손쉽게 관리하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메뉴는 인터넷뱅킹 서비스 메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뱅킹과 차별화된 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고연령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고유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다른 채널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욱 많은 노년층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뱅킹을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고연령대 소비자들은 이용방법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꺼리고 있으므로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킹 및 사이버 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노년층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조회나 이체거래를 하는 수단을 넘어서 상품 가입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제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의 거래량 증가가 양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은행들이 더욱 노년층을 배려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본다.

스마트폰뱅킹 이체 경험 상한 금액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화학회사 임원 K씨, 높은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적 투자전략 요구

화학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K씨(45세)[1]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4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K씨가 15년 후 필요한 매월 노후 생활비는 약 58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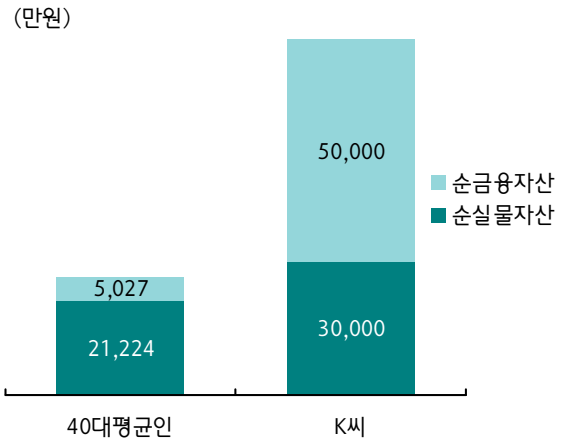
K씨는 국민연금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매월 80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에 각각 가입하였으며, 은퇴 후 매월 100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한편 임원 직책의 특성 상 향후 재직 중에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에 대한 산정이 쉽지 않아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과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동 금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했다.

K씨는 현재 3억원 규모의 순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순금융자산은 5억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80만원과 개인연금 100만원을 필요 생활비 580만원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40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10억 1,794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5억원을 모두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4.85%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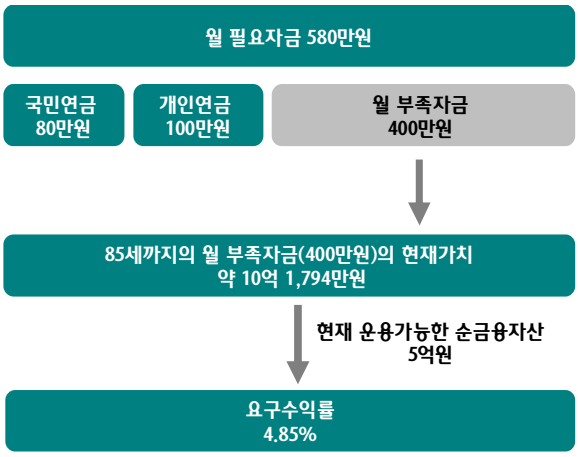
K씨는 평균적인 40대에 비해 순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 모두 많이 보유한 편이다. 특히 많은 순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전략만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0대 평균인과 K씨의 재무상태 비교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K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K씨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향후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총자산에서 이를 감안한 후 조정을 통해 분석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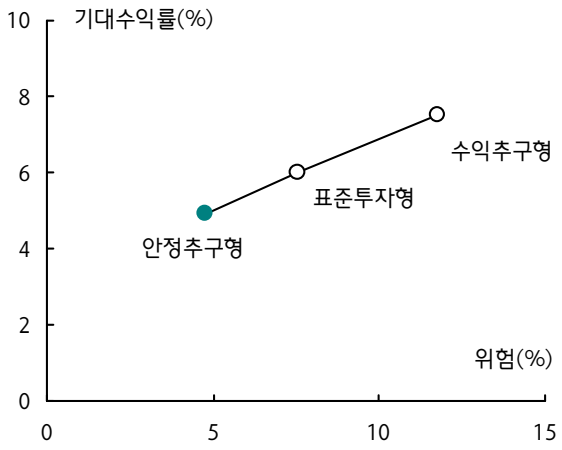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K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4.85%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K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4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0.0%, 국내채권 22.5%,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5.0%, 현금성자산 27.5%로 설정하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채권 및 대안형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또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추구를 위해 국내주식에 일부 투자한다. 현금비중은 유동성확보 차원 및 변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비중은 다소 높게 가져간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국내외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국내의 경우 시장 기대보다는 매파적으로 해석된 신임 한은 총재와 시장 예상보다 빠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리는 박스권 상단 이동이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가능성 상존, 일부 신흥국들의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나 신흥국 내 차별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메리트가 높은 구간이지만 기업 이익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박스권 횡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중위험형 상품 및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투자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10.0	12.0	25.0(−2.5)
선진국주식	–	12.5	32.5
이머징주식	–	3.0	7.5(+2.5)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5.0	35.0	19.5
현금성	27.5	15.0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4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채권 등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유명 투자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랩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하나자문형랩(Sytle I-M:기본), 단기 증시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신영마라톤(주식) A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이 적고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단기금리 상승 예상 시 매력적인 FC 정기예금형 신탁 등에 22.5%를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금리 및 크레딧 국면에 따라 고수익이 기대되는 다양한 채권 및 미국 시니어론 등에 분산 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5.0%를 투자하는 대안형 자산 중 10.0%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10.0%를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배분전략을 사용하는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에 투자하며, 15.0%를 투자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종MMF(S-26호). C에 27.5%를 투자한다. 한편 K씨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하나자문형랩(Style I-M:장기성장)	대신	5.0%
		가치(배당형)	신영마라톤(주식) A	신영	5.0%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0.0%
			FC 정기예금형 신탁	하나대투	12.5%
		해외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	하나UBS	5.0%
	대안형	중위험형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	유리	10.0%
		혼합형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	한국밸류	10.0%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5.0%
	현금성	-	하나UBS 신종 MMF(S-26호) C	하나UBS	27.5%
	합계				100.%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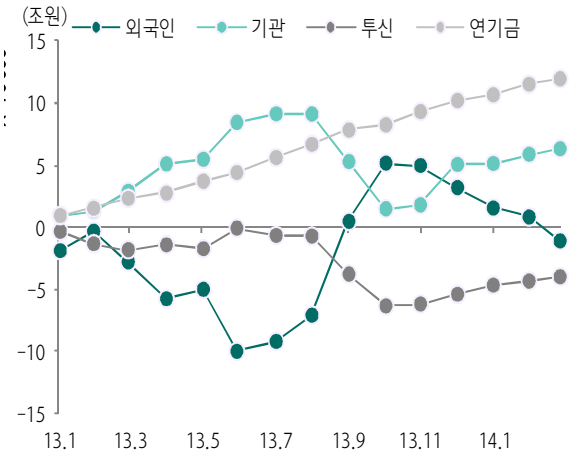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4월 주식시장은 박스권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한파 영향으로 인한 경제지표 부진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 경기 또한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다. 국내 시장 또한 중국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언급 등으로 부진했다.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목표치 하회 가능성에 따른 정책부양책 발표 기대감, 현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 등으로 반등 기대감은 높다. 또한 지난 5개월 간 약 6조원의 외국인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유럽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호재다. 다만 1분기 국내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주식시장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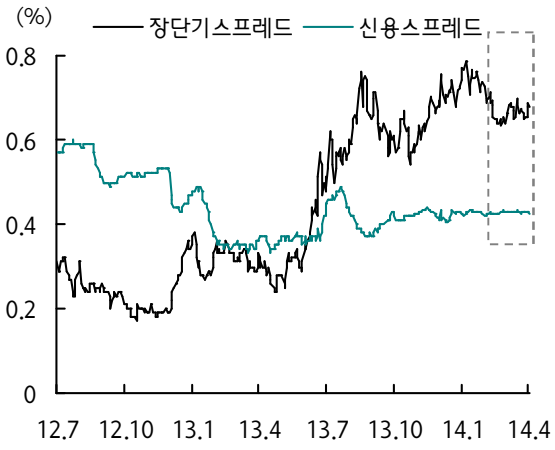
자료 : 하나대투증권

금리는 박스권 상단 이동 가능성 부각

4월부터 신임 한은 총재가 취임했으며,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장의 기대보다는 비둘기파 적이지 않다는 인식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높아진 모습이다. 또한 3월 FOMC에서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은 양적완화 종료 후 6개월 뒤라는 발언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금리는 박스권 상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우크라이나발 우려 부각 등으로 인해 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금리가 상승했고, 통화가치가 약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발 우려도 부각되면서 위안화 관련 통화도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신흥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인도·인도네시아 등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곳도 있어 향후 신흥국 내 차별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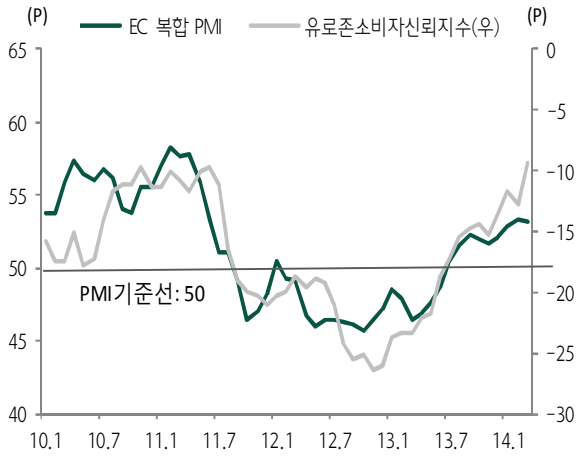
해외시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미국은 3월 FOMC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다소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다만 생산재개를 도모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미국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은 경기 정상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역내 소비심리 개선이 제조업 경기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ECB의 완화적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환율 부담도 경감되는 모습니다.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이 시행된 일본의 경우 가계소비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수입 증가로 아베노믹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하락 반전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위안화 변동폭 확대로 인해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제조업 경기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정권교체 이후 투자 회복 등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 둔화가 이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인상 등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으로 3월 FOMC 이후에도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리츠시장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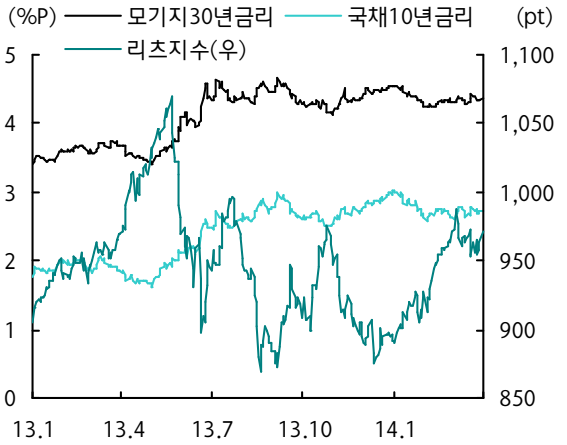
리츠 가격은 옐런 Fed 신임의장의 금리인상시기 발언에 따른 시장의 금리 상승은 단기적인 조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리파이낸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 및 펀더멘털 회복 흐름으로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복합PMI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3년 주요국 연금시장의 성장 및 투자전략 변화

"13개국의 연기금 자산규모는 약 32조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Towers Watson에서는 13개 주요국(이하 'P13')의 연금시장 현황과 이 가운데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위 7개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하 'P7')의 연금시장에 대해 보다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P13의 연기금 자산규모는 31조 9,800억 달러로 2012년 대비 9.5%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 GDP 총액의 약 83.4%에 해당되는 규모로 2012년의 75.6% 대비 7.8%p 상승한 것이며, 2008년의 5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연기금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국, 일본이 각각 10.2%, 10.1%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위 3대 국가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을 살펴보면 Superannuation 시장이 급성장한 호주가 1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브라질(13.1%), 홍콩(12.1%), 영국(10.0%) 등이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1.1%), 프랑스(2.0%)는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P7 시장의 연기금 자산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주식의 비중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채권 및 대체자산이 각각 28%,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주식 투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채권투자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주식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및 일본의 연기금은 채권투자 비중이 각각 50%, 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일본의 경우 채권 비중이 71%로 가장 높았던 2003년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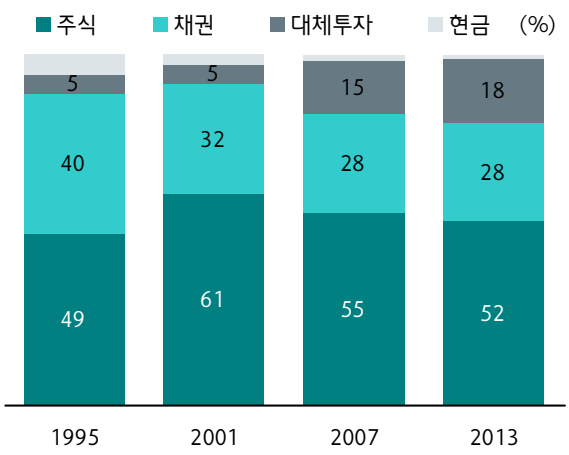
다음으로 Towers Watson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난

최근 10년간 글로벌 연기금의 성장세

국가	자산 규모(십억 달러)		연평균 증가율	GDP대비 비중
	2003년 말	2013년 말		
미국	9,942	18,878	6.60%	113%
영국	1,261	3,263	10.00%	131%
일본	2,906	3,236	1.10%	65%
호주	424	1,565	14.00%	105%
캐나다	636	1,451	8.60%	80%
네덜란드	614	1,359	8.30%	170%
스위스	355	786	8.30%	122%
독일	229	509	8.30%	14%
브라질	83	284	13.10%	13%
남아프리카	100	236	9.00%	67%
프랑스	139	169	2.00%	6%
아일랜드	64	130	7.40%	59%
홍콩	37	114	12.10%	41%

자료 : Towers Watson

자산배분 추이



자료 : Towers Wat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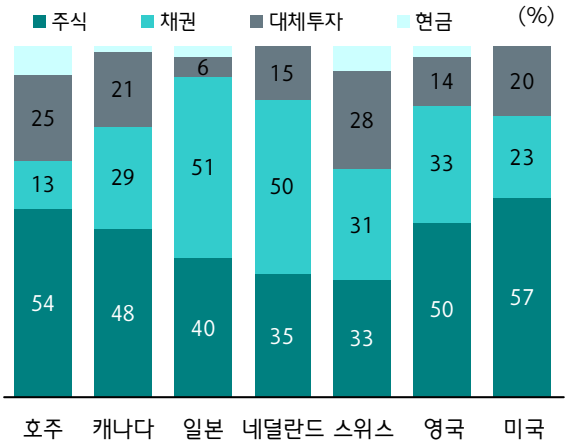
1995년과 비교하여 주목할 점은 P7 시장의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대체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및 원자재 투자 등이 포함된 대체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5년 5%에서 18%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호주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이 2003년 8%에서 2013년 25%로, 캐나다는 8%에서 21%로, 영국은 3%에서 14%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 주식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의 비중의 경우 1998년 65%에서 2013년 44%로 감소하는 등 주식 투자 시 자국편향 성향(home bias)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동 조사에 포함된 선진국의 연기금이 자국보다는 신흥시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채권 투자의 경우 1995년 전체 채권 중 자국 내 채권의 평균 비중이 88%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3년에는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DC형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9%를 기록한 반면, 확정급여(DB)형 자산의 성장률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자산배분 현황



| 자료 : Towers Wat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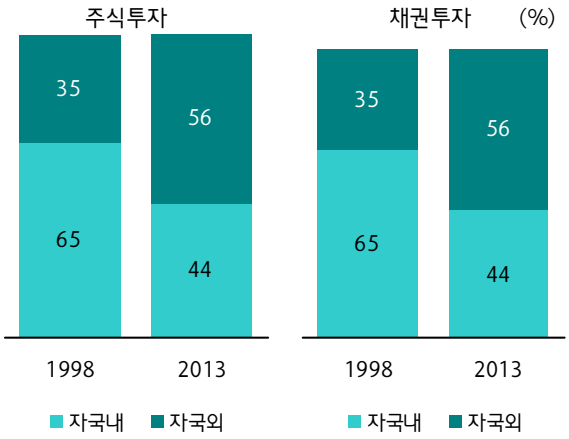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주요국 연기금의 대체자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체자산은 투자 위험 분산 효과가 크며 장기투자에 적합한 특성을 보유한 만큼 향후에도 주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체자산은 전통적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의 장기적 운용 특성에도 부합한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채권과 인프라의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다.

국내 연기금도 투자자산 다변화 차원에서 대체자산 투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은 주식 및 대체자산 투자 비중이 각각 30%, 9.4%를 기록한 가운데 퇴직연금은 90% 이상의 자산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의 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연금자산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편이다. 연기금의 대체자산 투자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국내 연기금도 투자자산 다변화 차원에서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 Global Pension Assets Study", Towers Watson, 2014.2)

자국 내 투자 비중 변화



| 자료 : Towers Watson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필요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적극 활용해 간병비를 비롯한 노후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가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확보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후생활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간병비를 위한 재원 마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월 개최된 보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연금 연계 간병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1].

현재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은 단독상품으로는 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공적보험에서 최소 보장을 제공할 경우 민영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상속동기(Bequest Motivation), 간병비용으로 인한 유산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 가족 내 모럴 헤저드(Intra-Family Moral Hazard) 등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방안이 바로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하는 제도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한 유동자산을 간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 대출액의 전부를 사용해서 세제적격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모기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모기지 보험료 면제 효과로 10만 달러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균 2,000달러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후 간병비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은퇴자들이 주택 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병비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도가 높을 것이며 또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한 재원을 간병보험 가입 재원으로 흡수할 경우 간병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학회에서는 주택연금을 연계한 간병제도 도입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세제혜택 지원방식으로 주택연금을 통해 간병비 지출을 충당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세법개정안에서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을 연금수령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간병비 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간병제도로 간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서비스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해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간 기관들이 주택연금 대출을 취급하고 정부가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간병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리드형 간병보험의 일환으로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즉, 보험사가 주택연금 대출을 취급하고 이 자금의 일부로 장기간병보험 특약이 부여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택연금연계 간병제도 도입방안”, 보험학회 2013 동계학술대회, 2014.2)

1) 박선영, 권오경, “주택연금연계 간병제도 도입방안”, 2014.2

1인당 진료비 年100만원 돌파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1인당 진료비가 2006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의 전체 진료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 9,5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진료비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며 진료받은 비용으로 비급여를 차감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2만 2,565원으로 2006년 59만 9,264원에 비해 8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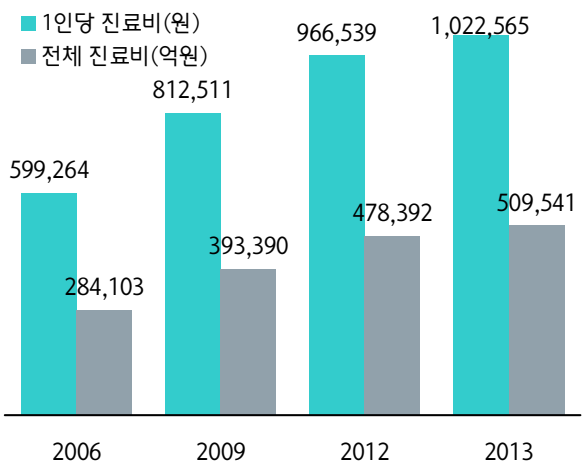
진료비 사용 액수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 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연간 314만 5,908원 · 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 2,565원 · 월평균 8만 5,214원)의 3배를 상회하였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도 일부 기인한다. 요양기관별로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이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네의원은 26%에서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진료비는 2조 7,880억원으로 2006년(1조 3,765억원)보다 102%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의 진료비(3조 1,749억원)도 2006년(3,187억원)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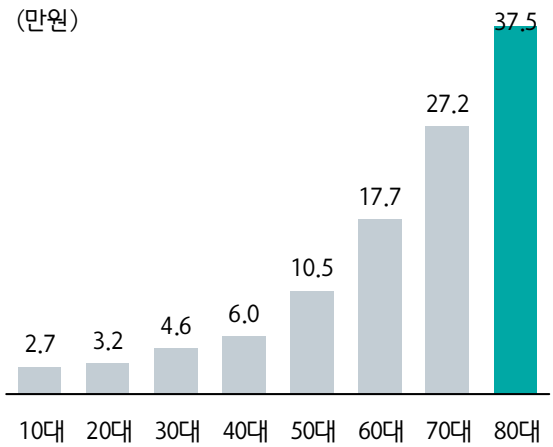
향후 고령화 현상의 진행으로 연간 1인당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10~20년 후엔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3)

1인당 진료비 증가 추이



연령대별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주택연금
가입 기준 대폭 완화

배우자 동일 연금액 수령, 세제 등 다양한 혜택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표적인 은퇴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주택금융공사가 확정기간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은행의 역모기지론 상품과는 달리 종신토록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주택연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

주택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없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일부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기존에 수령하던 금액을 100% 동일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긴 여성의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어 유사시 노후 생활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수령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등락에 대한 고민도 해결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재산세의 25%(단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되며,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세,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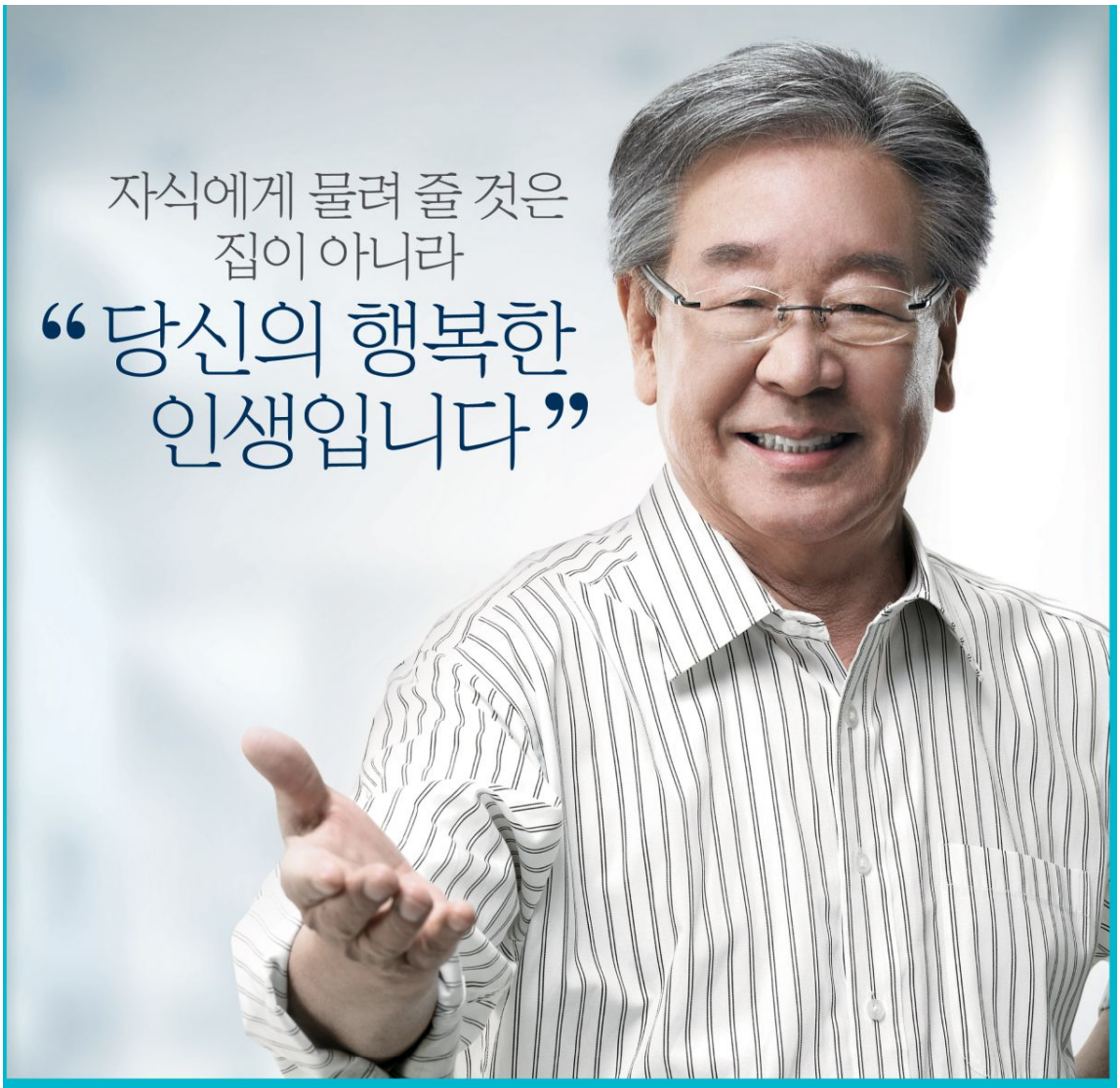
올해 3월부터 가입기준 대폭 완화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가입기준이 다소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단,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추후 주택을 처분하면 중단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또한 기존에는 복합용도주택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주택은 아예 가입이 불가했으나 현재는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주택도 '실시계획 인가 전' 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2014.3.10~)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부부 기준 1주택 예외: 3년 내 미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 가입 가능
복합용도주택	가입불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가입불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가입가능

| 자료 : 금융감독원 |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주택연금 월지급금(정액형) ('14.3월 기준)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60세	45만원	68만원	114만원
70세	66만원	99만원	166만원
80세	104만원	156만원	260만원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으신 분 기준

-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 또는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
-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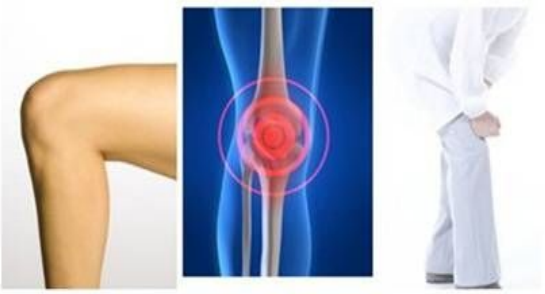
건강생활 실천으로 관절염 예방

관절염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인구의 15~20% 정도에서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그 종류도 100여 가지나 된다. 자료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관절염 유병률은 남자 5.5%, 여자 22.7%로 여성이 남성의 4배 이상이다. 연령별 골관절염 유병률은 남자 50대 2%, 60대 8%, 70대 11%이고, 여자는 50대 10%, 60대 25%, 70대 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원인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척추의 경우는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엉덩이 관절에 있어서는 무혈성 괴사(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뼈가 죽는 것)와 엉덩이 관절형성 이상이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발목 관절의 경우 골절 또는 주변 인대의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고령에서 질환이 발생하고, 노화와 연관된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단순히 노화만이 원인은 아니며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된다.

퇴행성 관절염



|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 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다. 통증은 초기에는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절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여 무릎 관절에 발생할 경우 관절 모양의 변형과 함께 걸음걸이에 이상을 보일 수 있고, 손가락 관절염의 경우 손가락 끝 마디에 가시 같은 모양으로 덧자라난 뼈가 생기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에 의해 발생되므로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없다.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하고 재활 치료를 하여 관절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관절염은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요법, 국소 치료,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나쁜 자세나 습관,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관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팡이 등의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주거나 부목이나 보조기를 일정기간 착용하여 관절을 쉬게 해 줄 수도 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진통 및 항염 작용을 가진 많은 약품들이 개발, 사용되고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항염 · 해열 · 진통작용을 가진 아스피린의 유사약물)가 대표적인 약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장기 투여, 혈액 응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글루코사민 등 장기 복용에도 큰 부작용이 없는 건강 보조 식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증상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나친 휴식은 근육의 위축을 가져와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으로 정상체중 유지하여 관절염 예방

관절염은 사망에 이르는 질환은 아니나 관절의 통증, 활동 제한 등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질환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예방 및 중증으로의 악화 방지가 필요하다.

1. 표준 체중 유지 : 비만은 관절염을 발생,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도비만이면 과체중과 정상체중보다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여자는 4배, 남자는 4.8배 이상 증가한다.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5Kg 감량할 경우 관절염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면 뼈와 관절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근력, 유연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및 낙상에 의한 손상예방 등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 금연 : 흡연자는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정도 높다. 지속적인 흡연 시 골밀도 감소 및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4. 관절 손상 예방 : 운동 전 충분히 몸을 풀고, 위험한 운동은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일을 할 때는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지 않고, 무게를 여러 관절에 분산시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1. 걸을 때 관절에서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가 난다.
2. 간단한 동작에도 무릎이 무겁고 관절이 어긋난 듯하다.
3.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오래 있으면 쑤시고 아프다.
4.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안 펴진다.
5. 저녁시간 혹은 운동 후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프다.
6. 몸무게가 실리는 무릎, 엉덩이, 고관절, 발과 척추 관절이 아프다.
7. 손가락 끝 관절과 엄지 뿌리 부위의 돌출 부분이 아프다.
8. 다리 안쪽이 휘어 서 있을 때 모양이 O자가 된다.
9.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삐걱 소리가 나기도 한다.
10. 똑바로 앉는 자세가 힘들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관절에 좋은 식품

식품	특징	식품	특징
계란	계란, 김, 미역, 우유, 다시마 등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	오가피	사지마비, 하지무력감, 부종, 구련(손발이 굳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증상), 골절상, 타박상 등에 효과적임
잡곡	정제되지 않은 곡류, 콩류, 밀배아 등 섬유질 비타민 풍부	굴	붓기를 빼주고 혈액순환, 통증 완화
참치	고등어, 연어, 참치 등 불포화지방산 EPA 풍부, 염증 생성 감소, 통증 완화	브로콜리	비타민 C,E가 풍부한 오렌지, 브로콜리, 토마토 등 퇴행성 관절염 예방

| 자료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하나은행, 신축 및 리모델링까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하나은행은 부동산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건축타당성 검토부터 설계·시공·임차마케팅·자금관리 부문까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자, 해외거주자 등을 포함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소장펀드 출시 기념 컬쳐이벤트 실시

하나대투증권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기념해 가입고객에게 Yes24 포인트와 상품권을 증정하는 컬쳐이벤트를 오늘 9월말까지 실시한다. 동 펀드는 재산형성과 절세혜택이 꼭 필요한 20~30대 근로소득자들이 선호할만한 제테크 상품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문화적 혜택도 함께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사이버환전 서비스 전면 개편

외환은행은 지난달 26일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관련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환전 서비스'를 더 쉽게 편리하게 전면 개편했다. 동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환전 등록을 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수령하는 서비스로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더 쉽고 편리하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SK카드, '봄 쇼핑, 봄 여행 이벤트' 진행

하나SK카드는 2014년 봄을 맞아 고객들의 쇼핑과 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봄 쇼핑, 봄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SK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고객이면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쇼핑 및 여행 관련 업종 결제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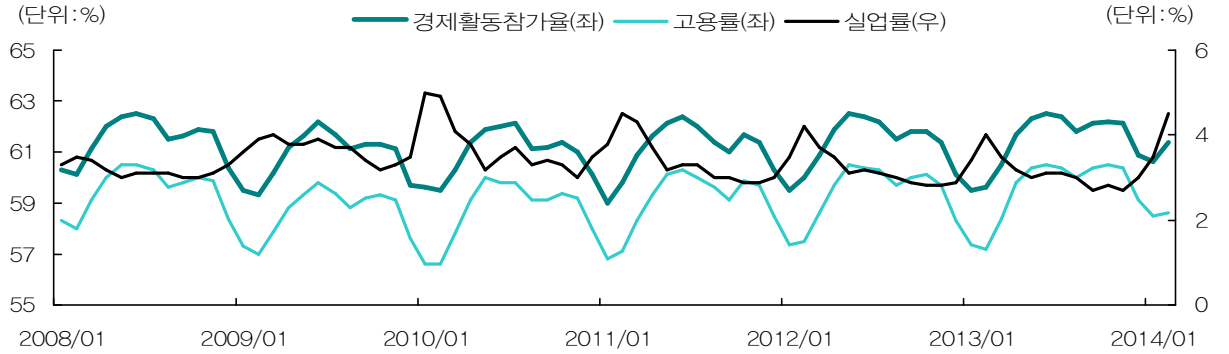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2	61.0	10.2	63.0	75.4	80.3	74.1	35.4	58.6	8.7	57.1	73.1	78.5	72.6	33.6
2014.1	60.6	10.5	62.2	75.1	80.1	73.7	34.7	58.5	8.7	57.2	73.2	78.5	72.3	33.3
2014.2	61.4	9.8	63.8	75.6	80.4	74.5	36.1	58.6	8.7	56.9	72.9	78.4	72.8	33.9

(단위 :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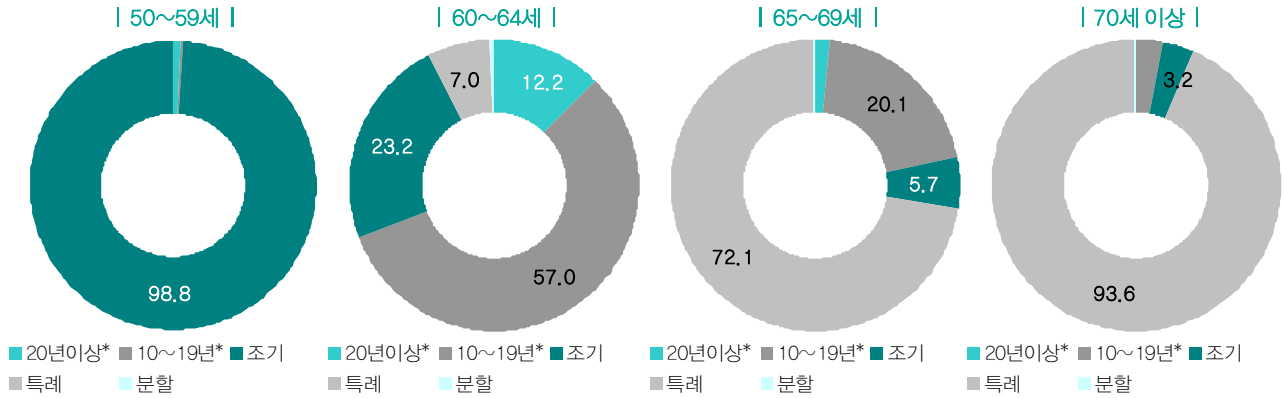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1	20,781,863	1,292,742	11,889,891	8,592,217	1,979,786	6,612,431	178,687	121,068

2. 2014년 1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1	271	3,322
2014.2	327	3,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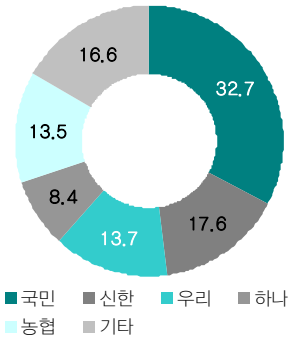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2. 2014년 2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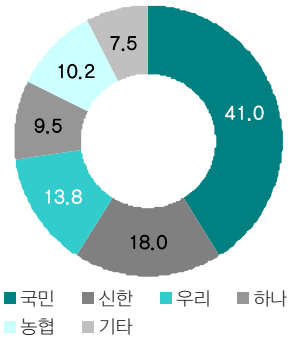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146	91,516
신한은행	532	40,069
우리은행	480	30,882
하나은행	293	21,230
농협	473	22,745
기타	582	16,663
합계	3,506	223,105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1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870,041	5,304,698	1,422,319	84,750	1,323,926	88,860	103,248	33,838
생명보험	3,156,559	2,851,543	192,357	3,545	237,271	8,337	13,008	1,665
손해보험	1,096,299	999,822	60,312	267	57,778	1,849	1,969	83
증권	2,680,383	2,434,280	136,054	363	119,433	3,298	6,916	112
근로공단	102,461	–	100,169	427	26,427	–	26,213	214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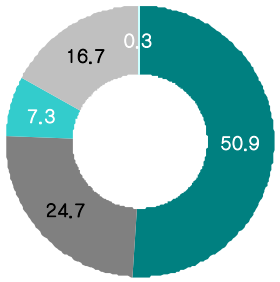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7,286	82,355	32.0	6,724	2.6	132,720	51.6	35,505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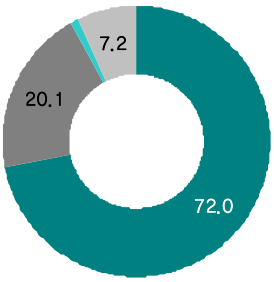
3. 2013년 1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42,996	606,573	169,114	6,940	60,368
은행	429,294	268,266	112,454	6,693	41,880
생명보험	207,995	176,772	22,730	196	8,298
손해보험	61,662	54,493	5,141	12	2,017
증권	141,138	107,043	25,916	23	8,157
근로공단	2,906	–	2,873	16	16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DB형 ■DC형
■증권 ■근로공단 ■기업형IRP ■개인형IRP

4. 2013년 1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95,285	48.6	104,352	61.7	6,054	87.2	37,463	62.0	443,154	52.6
	금리확정형보험		219,325	36.2	17,216	10.2	132	1.9	7,477	12.4	244,150	29
	금리연동형보험		20,972	3.5	5,429	3.2	61	0.9	1,683	2.8	28,144	3.3
	국채		501	0.1	1,065	0.6	0	0.0	1,417	2.3	2,983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46,061	7.6	2,020	1.2	0	0.0	1,848	3.1	49,930	5.9
	RP		9,439	1.6	2,036	1.2	1	0.0	850	1.4	12,32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7	0.1	0	0.0	39	0.1	177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보장금 소계			591,582	97.5	132,258	78.2	6,247	90.0	50,783	84.1	780,871	92.6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1	0.0	1,542	0.9	10	0.1	353	0.6	2,065	0.2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904	0.1	66	0.0	0	0.0	40	0.1	1,011	0.1
		혼합형	735	0.1	8,418	5	15	0.2	1,219	2	10,388	1.2
		채권형	3,937	0.6	22,599	13.4	604	8.7	3,274	5.4	30,414	3.6
		재간접	106	0.0	215	0.1	0	0.0	25	0.0	347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392	0.2	0	0.0	0	0.0	0	0.0	1,392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7,236	1.2	32,841	19.4	630	9.1	4,911	8.1	45,617	5.4
	직접투자		435	0.1	64	0.0	0	0.0	308	0.5	807	0.1
실적배당 소계			7,670	1.3	32,905	19.5	630	9.1	5,219	8.6	46,424	5.5
대기성 자금			7,321	1.2	3,951	2.3	63	0.9	4,366	7.2	15,701	1.9
총계			606,573	100.0	169,114	100.0	6,940	100.0	60,368	100.0	842,996	100.0

5. 2013년 1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401,816	93.6	198,008	95.2	60,156	97.6	118,084	83.7	2,808	96.6
실적배당형	18,500	4.3	8,433	4.1	1,492	2.4	17,980	12.7	20	0.7
기타	8,978	2.1	1,555	0.7	15	0.0	5,075	3.6	78	2.7
합계	429,924	100.0	207,996	100.0	61,663	100.0	141,139	100.0	2,906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4.04[No.04]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